

함 즐 함 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례 12:15

426

2020.8.9

2020년 주님의교회 표어
가정이 신앙의 주체입니다(II)
신명기 6:5~7

오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
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오늘의 주요기사

- 1-4면 유아숲 여름성경학교
- 5면 목회칼럼
- 6-7면 신임 향존직 소감
- 8면 공동체 소식

교회일정

- 8/9(주일), 8/16(주일), 8/23(주일)
- 청년숲 여름 말씀 집회
- 8/22(토), 23(주일), 30(주일)
- 유소년숲 연합 여름수련회
- 8/23(주일) ~ 9/6(주일)
- 청소년숲 여름 온라인수련회
- 8/28(금) - 겨자씨인도자 수련회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김유호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홍보출판부
홈페이지 : www.pcltv.org

주님의교회



“말씀파워 예수님!”



커버 스토리 | 유아숲 여름성경학교

가정에서 함께 한 “말씀파워 예수님!”

2020 유아숲 여름성경학교가 유아숲 유튜브 채널을 통해 7월 11일(토) ~ 7월 26일(주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일정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타 교회 어린이를 포함해서 232명의 어린이가 신청했고, 여름성경학교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주일예배와 여름성경학교 성서학습은 120명의 어린이도 함께 했습니다. 유아숲 여름성경학교에 임하신 예수님의 말씀파워를 보고 합니다.

유아숲 여름성경학교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며 복음의 빛 가운데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말씀, 곧 예수님이 전해지면서 세상은 변화되었습니다. 말씀은 단지 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입니다. 유아숲 친구들도 말씀파워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 얻게 되는 기쁨을

맛보고 그 기쁨과 사랑을 온 세상에 나누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올해 여름성경학교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특별한 말씀잔치였습니다. 각 가정에서 신앙교사로 함께 해 주신 유아숲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하나의 꿈, 하나 된 열정으로 다음세대를 세워가는 유아숲의 모든 가정을 응원합니다.

여름성경학교 키즈 박스 제작



여름성경학교 키즈 박스를 제작하여 각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키즈 박스안에는 어린이교재, 특별학습 만들기 재료, 단체복, 선물 등을 넣었습니다. 키즈 박스는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 교회를 방문하여 받아가거나, 드라이브 스루에 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택배로 받았습니다. 7월 11일(토) 찬양웨이브와 뮤지컬 '물고기 랄라' 로 여름성경학교 오프닝을 하였습니다.

성서학습



3주 동안 매 주일 예배 이후 부서별 성서학습이 진행되었습니다. 각 부서 전도사님들이 해당 부서의 성서학습 내용과 만들기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변화된 모습과 에베소 도시의 변화를 통해 말씀의 놀라운 힘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말씀파워 예수님으로 인해 온 세상에 넘치는 기쁨을 말씀로켓을 만들어 활동해 보았습니다.

특별학습



특별학습1,2,3과 요리활동은 2주 동안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을 게시하여 키즈 박스안의 재료들을 이용하여 아이들이 활동했습니다. 요리, 만들기, 음율, 이야기 등의 다양한 활동들로 성경학교 주제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임 아기부 후기 | 위은솔 어린이 어머니



우리 아기가 태어나 처음으로 참여하는 여름성경학교!

오프닝파티 영상을 여러 번 틀어주었더니 찬양을 틀면 따라 부르지는 못해도 열심히 율동을 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식사시간마다 냉장고에 붙여놓은 말씀달력의 예수님 동작을 따라 해서 온 가족이 '말씀파워~예수님!'을 외쳐주기도 했고요^^ 각각의 특별활동을 세심하게 준비해주셔서 아기에게 복음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또 교감 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주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담쟁이 유치부 후기 | 최주아 어린이 어머니



갑작스레 찾아온 코로나로 인해 벌써 5개월 넘게 교회가 아닌 집에서 드려온 온라인예배가 익숙해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손꼽아 기다리던 여름성경학교 마저 온라인으로 드린다는 소식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힘든데 유아숲 전도사님들은 얼마나 힘드시까 걱정되었습니다. 매주 예배 영상과 수요일과 금요일에 하는 특별학습 영상에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고생하셨을텐데 웃음 잃지 않으시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이가 화면상에 나오는 전도사님들을 보며 처음에는 낯설어 했습니다. 교회에 가서 드리던 예배를 집 TV앞에서 본다는 것에 이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는 것을 알고는 매 주마다 보이는 얼굴에 너무 반가워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도 예쁘게 부르며 누구보다도 열심히 코로나 없애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아가 가장 기다리는 시간! 예배영상 마지막에 예배드리는 자기사진 나오는 것도 엄청 좋아했습니다. 자기 사진도 찾고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언니오빠 사진을 보며 반가워했습니다.

무엇보다 엄마 아빠와도 함께 예배도 드리고 키즈 박스안에 있는 공과 책을 함께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평일에는 특별학습키트를 열어 복음자동차, 바나나요리, 말씀 종, 기도 손바닥 부채를 만들며 들은 말씀을 다시 기억해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여름성경학교를 미디어로 접하긴 했지만 각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마음은 같을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장소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씨앗 영아부 후기 | 이서진 어린이 어머니



코로나19로 인하여 벌써 몇 달째 집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 예배 영상에서 여름성경학교를 한다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당연히 취소되리라고 예상했던 여름성경학교 소식에 이제 드디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예상치 못한 진행방식에 어떻게 성경학교가 진행이 될까 궁금함이 커져가는 가운데 성경학교 날짜는 점점 다가왔습니다. 교회에 마련된 드라이브-스루에서 몇 달 만에 전도사님들을 화면에서가 아니라 직접 만나 보니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준비해 주신 키즈박스만 받고 바로 가야 해서 아쉬움도 컸습니다. 커다란 키즈박스에 담긴 단체복을 비롯해 다양한 만들기 재료를 보니, 전도사님들께서 아이들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집에서 영상을 보며 만들기 특별활동을 할 때에는 아직 아이가 어려 엄마 아빠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새로운 것에 흥미를 느끼며 즐겁게 따라하다 보니 어느덧 3주의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평소에도 여름성경학교 찬양을 흥얼거리는 아이의 모습에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배 영상을 보며 하는 여름성경학교도 즐거웠지만 내년에는 친구들과 수박을 먹고, 물놀이도 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여름성경학교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준비해주신 전도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썩트네 유아부 후기 | 정재이 어린이 어머니



2020년 여름성경학교가 재이의 생애 첫 성경학교 참석인데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어 아쉬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예배드리니 낮잠시간을 피해 최고의 컨디션일 때 예배를 찾아볼 수 있고 가까이에서 집중해서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성경학교 주제인 '말씀파워 예수님'의 말씀주제에 맞는 만들기 키트와 예쁜 단체복을 택배로 받았는데 너무나 정성스럽게 신경 써서 보내주셔서 준비하신 손길의 수고가 느껴졌습니다. 재이는 만들기 활동 중에서도 바나나로 만드는 복음배 요리 활동을 가장 즐겁게 만들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올해 초 엄마와 떨어져 혼자 예배드리는 게 어려워 교회 갈 때마다 안 간다고 우는 재이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제는 교회에 가고 싶다고 언제 갈 수 있는지 묻는 아이의 질문에 잔한 마음도 들지만 재이가 교회에 가지 못한 몇 달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재이를 많이 성장하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다음 여름성경학교는 모두 직접 만나서 손잡고 즐겁게 예배드리기를 바라며 이번 성경학교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준비로 수고해주신 유아숲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목회 칼럼

준비하는 공교회

공공(公共), 혹은 공적(公的)은 사전적 의미로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두루 보탬이 되는 것을 공공이익(公共利益)이라고 정의합니다.

신앙도 공적이고 공공이익의 한 측면이 있습니다.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회(교회)를 믿사오며…….’라고 고백합니다. 거룩한 공회(公會)를 인정하는 믿음은 교회의 건물과 교권조직체의 권위와 거룩한 전통, 그리고 성도들의 회중(신도 회중) 그 자체를 믿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거룩한 공회’로 만드는 그리스도와 성령이 현존하시며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신학은 공교회와 공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한 공적신학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교회는 주님의 몸 된 교회가 거룩한 공회로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공성을 가진 교회가 섬김의 성격과 영향력을 나타낼 때 비로소 공적신학이 시작되고 형성됩니다.

그렇습니다. 공공신학은 어렵지 않고, 최근에 생겨난 이론도 아닙니다. 이 신학은 옛부터 지켜오던 개념을 새롭게 정의내린 것뿐입니다. 정리하면, 공공신학은 예수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동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교회도 세상을

향해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교회의 역할이 정해집니다. 교회는 곧,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을 살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며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갖고 있는 공적인 개념의 교회 성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코로나바이러스와 교회입니다. 코로나19는 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고 교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개인

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 걱정과 염려보다 이 위기를 어떻게 함께 극복해 가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교회가 공공신학의 개념 아래에서 공적인 교회로서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지금의 시기에 교회는 사회에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 당연한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기본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교회가 갖는 신학적 고민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구나 다 어렵고 힘든 시기,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적신학의 사명을 감당하며 유연한 사고와 시스템으로 이웃과 공동체와 연대하고 그들을 섬김을 통해 사회의 빛이 되는 교회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과 사회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긴밀한 협력의 관계로 형성되어 있음을 절실히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개인과 사회가 긴밀히 협력할 때 공동체가 성숙해져 가는 것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코로나를 전파하는 매개체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는 예배를 영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성도들의 예배 참여의지가 약해질까 염려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보다 더 사회가 분열되듯 교회도 양극화의 문제와 더불어 재정, 시간, 공간의 문제가 어떻게 다가올지 걱정이 되기가 지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스스로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위기들을 극복해 왔습니

다. 위한 신학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 보입니다. 또한, 교회가 예배하며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가 결정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바로 누리기 위한 공동체, 자신의 생각을 펼쳐내는 개인과 개교회 중심의 공동체에서 벗어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원이 개인에게 소중하지만 공동체의 구원도 이웃사랑의 개념에서 소중한 하나님의 지상명령임을 잊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공교회로서 교회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공교회에 맞는 역할을 다시 한번 깊이 숙지해야 할 때입니다. 우선은 나보다 이웃을 생각하면서 서로가 협력과 섬김을 통해서 불편함을 감수해 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뿐



만아니라 공교회로서 나보다 이웃교회를 둘러보며 취약계층을 섬기는 여유와 시간, 재정, 인력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영향력을 나눠 줄 수 있는 교회 연대와 그 수행을 감당할 공동체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때가 아닐까 합니다.

누구나 다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며 공교회가 갖는 지위와 위치 아래서 교회가 사회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공적신학 아래에서 유연한 사고와 시스템을 갖춘 공교회로서의 모습을 더욱 갖추 갈 수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은석 목사

1) <https://ko.dict.naver.com/공공/공적/공공이익>
2) 공회는 원문 에클레시아(ecclesia)로 부름 받은 교회회중, 교회공동체를 말한다. 부름 받은 공동체의 근본 속성은 ‘거룩한, 성스러운 것’이라 규정한다. 김경재, 『개신교회의 공교회적 가치와 공공성의 의미』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사상, 2013)

교회 용어, 이것만은 고치자(앙코르 연재) > 예배, 예식용어 편 4

어느 예배도 크다 작다 구분할 수 없다

대예배(×), 주일 예배(○)

예배는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구속의 크신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큰 예배가 있고 작은 예배가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응답의 행위가 예배일진대, 거기에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언제부터인지 주일 낮에 드리는 예배를 지칭하여 ‘대예배’라고 부르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많은 교회들이 주일 낮에 드리는 예배 때에 가

장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온 말인 것 같다. 그러나 분명히 ‘대예배’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논리적으로 ‘대예배’가 있다면 ‘소예배’도 있다는 말인데, 어떠한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소예배’일 수가 없다.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한에 있어서, 어떤 예배도 ‘소예배’일 수가 없다. 다만 예배일뿐이다. 물론 시간별로 예배를 구분할 수는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주일 예배라든지, 주일 저녁(오후) 찬양 예배라든지, 혹은 시간에 따라 1부 예배, 2부 예배라고 부르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대예배’라는 용어는 합당한 말이 아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자료 / 함줄함줄 정리

임직 소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코로나19 사태로 도래한 낯선 시대, 많은 생각과 참된 섬김이 필요한 때를 맞아, 2020년 창립기념일에 임직한 항존직 여러분의 남다른 소감과 각오를 교회 공동체와 나눕니다. 항존직으로 안수를 받을 때 무릎 꿇고 다짐한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낮은 곳에서 주님의교회 공동체와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신임 항존직 여러분의 다짐을 함께 기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가나다 순)

함줄함울

장로



서정하 장로

할렐루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직분이란, 명예가 아니라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충성된 사역자로서 지혜충만, 성령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 위한 헌신과 섬김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에 굳게 서서 봉사하고 화생하는 직분이라 생각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귀한 사명을 안고, 십자가를 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신형섭 장로

25년 전 정신여고 담을 걷는 중 “주님의교회 예배처소”라는 현수막을 보고 등록을 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 청소를 하며 주님을 가까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주일예배 시에 교우들이 더욱 깨끗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깨끗하게 청소를 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장로 임직 소식을 듣고 하나님 부르심에 임직식에 참석을 못하고 편안하게 하늘나라에 가신 아버님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늘 마음에 가지는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말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교회와 교우들을 섬기기를 늘 기도를 드립니다.



최재경 장로

하나님께서 나 혼자의 열심이 아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가야 함을 훈련 중에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더불어 사는 삶. 힘들 때 서로 손잡아 주고, 기쁠 때 함께 진정으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주님의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삶으로 살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안수집사



구성원 안수집사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항존직으로 피택되어 20주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이제 안수집사로 임직하였음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한량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직분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지혜롭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 뜻대로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충성스럽게 쓰임 받게 하옵소서.



김성수 안수집사

부족하고 무익한 종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직분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섬김을 항상 생각하고,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항상 겸손하고 친절하게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고, 신앙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고, 맡겨진 직분을 십자가로 생각하고 온맘다해 섬기겠습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승노 안수집사

허물 많고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저에게 기록한 항존 직분을 수행하라는 격려를 잊지 않고 임직서약을 마음에 새기어 운운하고 낮은 자세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화평과 연합에 힘쓰며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여 말씀 묵상과 기도, 헌신에 힘쓰며, 주어진 직분과 변화를 감당해 나가는 올바른 직분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건강하고 신실함이 커져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는데 헌신하며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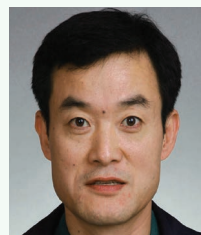
김윤수 안수집사

제가 청년이었던 시절 한국 교회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교회들의 몰락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갖는 역할과 중요성이 막대하다고 느끼고 있을 즈음에 안수집사로 임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오신 선배님들의 뒤를 이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벽돌 한 장 더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세 안수집사

처음에는 오랜 동안의 교육을 어떻게 맞추어서 가 하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이 기회가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구나 하는 설렘으로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교육을 통하여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큐티를 하였지만 지금은 의무가 아닌 제 삶의 일부가 되었고 눈을 뜨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의 어느 시간보다도 귀중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생활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김희동 안수집사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안수집사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며 일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과 성도님들 모두의 기대와 바람에 어긋나지 않도록 직분에 힘써 더욱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 교회 안팎으로 칭찬받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와 헌신과 섬김의 자세를 갖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주어진 역할에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박동진 안수집사

주님의교회 고등부 교사와 너나들이부에서 활동을 하던 중에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안수집사로 피택을 받고 감사하였지만 한 편으로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과연 자격이 있는지? 직분을 감당 할 수 있는 지? 또한 마음의 부담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보라고 주신 은혜라고 마음을 먹고 최선의 노력으로 직분을 충실하게 하기로 각오를 하였습니다. 저의 삶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태곤 안수집사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년 수만 큼 제 믿음이 깊고 단단하지 못했기에 항존직 임직을 받으며 다음과 같은 각오를 해 봅니다. “주님, 엘리야처럼 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잔잔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 즉,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칠천 명 중의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배기호 안수집사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믿음도 연약한 저를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수고를 통해 7개월여 동안 연단시키시며 지난 믿음 생활을 돌아보며 마음 자세를 새롭게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먼저 섬기며 다섯 번째 복음서로서 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되게 하옵소서.



신재범 안수집사

하나님께서 저에게 안수집사라는 직분을 주신 것은 사명을 맡겨 주시기 위함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올바르게 분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웃에게 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무조건적인 사랑과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린도전서 4장 2절)”



신재은 안수집사

안수집사 직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존직 직분이라는 것이 남의 일만 같았고 저에게는 멀게 느껴졌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저에게 맞지 않는 옷처럼 느껴지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피택자 교육기간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교제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직분자가 되도록 기도하며 힘쓰겠습니다.



유신식 안수집사

2019년 피택된 후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과연 제가 항존직분에 합당한 자인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피택자 교육기간 동안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주님께서 “네가 이미 합당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그 자리에 합당한 자가 되라”고 하시는 듯 하였습니다. 주님의교회 항존직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와 사역을 통해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옥 안수집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원을 어디서 보낼지는 십자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결정되고, 영원을 어떻게 보낼지는 신자로서 어떻게 사느냐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신자로서의 삶은 내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는 것, 외적으로 복음을 전하여 불신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청지기로서 교회와 성도를 충성되이 섬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진들을 본받아 주님이 주인되는 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정춘 안수집사

피택자 교육과정 끝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직분을 받는 것은 교회의 생과 사를 함께 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하신 그 말씀에 내 신앙을 비춰보고 많이 찼습니다. 내 나이와 신앙의 연륜에 맞게 성숙하도록 말씀과 기도에 더욱 열심을 내야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하였습니다. 항존직 직분자로서 앞으로 성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늘 생각하며 작은 것부터 충성된 종의 마음으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과 함께 마음의 다짐을 합니다.



이철용 안수집사

작년 피택자 교육을 실패와 두려움으로 시작했는데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날의 신앙생활은 열정이 없이 습관적으로 주일을 섬기며 믿음보다는 의심이 더 많았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작년 투병 생활을 하던 아내를 하나님께서 부르고 나를 깨우셨습니다.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심’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생명 구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도일 안수집사

안수집사로 피택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피택자 훈련이 처음에는 힘들거라 생각으나, 담임 목사님의 자상한 지도로 생각보다는 좋았습니다. 의무적인 새벽 기도도 적응이 어려웠지만 몇 주 지나니 기쁨을 느꼈습니다. 교육 시 부목사님의 일상불란한 매끄러운 진행도 훌륭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피택기간 정확한 얼굴을 볼 수 없고 소통 부재가 아쉬웠습니다. 교육 후 교회에 대한 애착심과 의무감이 더욱 진중해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활로 삼고 교회에 봉사하는 성도로 거듭나겠습니다.



현병택 안수집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합당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속담처럼 나의 직분에 만족하기란 여간 힘든 일 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처한 환경에서 전심을 다 하기를 소망하고 계심을 새삼 깨닫는 소중한 시간 이었습니다. 새벽에 성전에 앉아 있는 저를 기쁘게 받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홍승길 안수집사

주님의교회 집사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 6장은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여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집사를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담전 1장 8~9절(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 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며,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했던 스테반과 빌립 집사처럼 직분을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황영균 안수집사

부족하고 부끄러운 마음 가득한 채 피택교육을 마치고 임직하게 되었습니다. 새벽예배와 말씀 묵상, 신앙서적 독서, 피택자들의 진솔한 간증 등은 그 동안 나태했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였고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깊게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가 사회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제 5복음서만 기억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김경희 권사

남들은 은퇴할 나이에 임직을 받아 기쁘기보단 부끄럽기도 하고 맘에 부담도 컸습니다. 교육을 받으며 맡겨 주신 직분이 크고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리며 리더로서의 소신과 책임감이 느껴져 분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 봅니다. 또 남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늘 귀에 켜져 있게 남으며 주님께로만 달음질치는 귀한 믿음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이 마음 잊지 않기를 기도하며 부족하지만 일군으로 세워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택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보답코자 더 열심을 내겠습니다.



김명숙 권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 부족하고 미약한 딸을 함축적으로 세우셔서 주님의 사역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이 섬김의 롤모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도 중심으로 충성하고 헌신하여 훗날 자녀, 동역자, 후배들이 본받고 싶은 신앙인으로, 그리고 가정, 직장, 교회, 이웃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도록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김선미 권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귀한 직분을 주시며 주님의교회 함축적으로 다시한번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하신 것도 큰 은혜입니다. 지금부터 저를 다듬어주시길 주님을 기대합니다. 피택교육의 마지막 강의 말씀은 항존직은 섬기는 자리 그러나 먼저 섬기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정직한 직분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김성은 권사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제 모습을 비춰보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판단과 불평보다는 긍정과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세우며 함께 주께로 가는 여정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 예수님의 큰 사랑을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에 반사하도록 부름 받았다" (예수의 길/헨리 나우웬)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김예경 권사

권사는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직분이라고 합니다. 중보기도로 성도와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도록 교회의 섬김이가 되어야겠지요. 권사로 임직을 받으니 부족한 나를 탓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됩니다. 내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판단이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덮으며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김은희 권사

항존직 임직자로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섬김과 봉사로 헌신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권사

권사 안수를 받는 것이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심이 확증된 것 같아 그 시간이 너무 설레고 기다려졌었습니다. 이 시기에 권사의 직분을 주신 것은 때에 맞는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라는 부르심, 그 날의 기쁨과 감격과 무게를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더 확실하게 하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따라 섬김을 실천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류혜경 권사

부족한 저를 택하시고 훈련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 큰 수고와 애씀으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자리임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의 삶을 바르게 하고 주신 말씀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민연식 권사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앞서 임직자 되신 분들을 거울삼아, 자신을 돌아보고 성실함과 인내 속에서 끈기를 가지고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직분을 맡겨 주시고, 섬기고, 교회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함은 몸 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헌신된 자세와 이전보다 더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공동체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충성된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유경 권사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줄으로 어찌해야 하는지 아직은 잘 모르지만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께 묻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겸손한 자세로 공동체를 돌보며 서로 소통하며 세워주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윤숙영 권사

주님께서 저에게 과분한 직분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감당하길 원합니다. 피택자 교육훈련을 통해 올바른 사명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훈련받은 것을 다짐하며 되새기며 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관계속에서 기도로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교우들의 사랑과 격려에 힘입어 교회 공동체를 위해 낮은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사랑으로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희 권사

거룩한 직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모든 성도님들께서 부족한 저를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재물에 더 관심을 가졌던 저를 이번 직분자 훈련기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구원에 힘쓰며 주님나라 일꾼으로 쓰시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이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힘든 생명들을 위해 기도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긍휼하심에 힘입어 조금씩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겸손히 나아가겠습니다.



이영숙 권사

피택 전에는 권사라는 직분의 무거움을 이해하지 못했으나 막상 피택을 받고 보니 부담감이 앞섰습니다. 선거 날 목사님께서 피택된 분들은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시어 교육하시고 훈련하여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삼으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에 피택을 기쁨과 감사로 여겨졌습니다. 교육기간동안 힘든 일도 있었지만 교육에 충실하게 임하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얻게 되어 제게는 축복과 감사의 시간이었습니. 말씀과 기도로 제게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해련 권사

하나님의 은혜로 피택 교육과 임직을 마치며...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생명을 살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쓰임 받는 부르심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손으로 바른 일을 행하며 발로 주님의 길을 걸으며 지체들을 세우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내고 맡겨주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길 결단하며 다짐해 봅니다.



이효순 권사

무엇보다도 부족한 저에게 참으로 귀한 직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겸손하고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항상 아픈 자, 슬픔에 처한 자들과 함께 하며 주님께 중보로 간구하는 성도로 살고 싶습니다. 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열심히 섬기고자 하오니 기도로 많이 도와주시옵소서.



조선옥 권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여러 시간 동안 목사님의 말씀과 묵상의 나눔과 훈련을 통하여 선한 일꾼으로서 겸손과 온유로 충성되어 섬기는 자로 서기를 마음에 새겨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으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조정숙 권사

권사 임직을 하면서 부족함과 죄책감이 더 크게 다가와 기쁨보다는 마음이 무겁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헌신케 하시니 감사함으로 나의 생각과 뜻을 말씀에 비추어 삶 속에서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하며 직분자로서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힘쓰며 많은 사역을 사랑으로 잘 감당하며 소망으로 인내하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겠습니다. 많이 기도해주세요~♡



천옥현 권사

피택자로 세워져 각오와 다짐으로 6개월간 교육을 받으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매일매일의 큐티와 교육을 통해 리더로 세워짐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교회와 가정을 견고히 세우고 본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헌신성, 영적훈련에 대한 적극성, 물질에 대한 순결성으로 이전과의 다른 모습으로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최은실 권사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택하셔서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권사 직분을 주셨으니 기쁘고 감사합니다. 거룩한 부담감도 있지만 주신 은혜 잘 감당하며 품격을 지키며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낮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하는 주님의교회 권사회



주님의교회 권사회는 1991년 1기 권사회 임직을 시작으로 2020년 현재 은퇴권사 100명, 시무권사 236명으로 구성된 자치단체입니다.

권사회 활동은 주로 시무권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월 넷째 주 수요일 모여서 예배와 찬양 그리고 식탁교제 등 주님교회의 어머니로서의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활동으로 제한을 받지만 조별 카톡방을 이용하여 많은 권사들의 동의를 받아가며 기본적인 사업은 물론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정신여고 생활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위기 속에 이웃사랑을 위해 금홍헌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나라와 민족과 코로나사태 회복을 위한 조별 릴레이 중보기도를 드리고, 십자가 사랑에 빚진 자로 살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웃을 섬기는 작은 실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선교부 미자립 협력교회인 영월 조전교회의 담임목사님(장세열)께서 암투병을 하며 목회를 하셨는데 오래된 사택의 문턱에 머리를 크게 부딪혀서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고 주일예배는 사모님이 인도하신다는 딱한 소식을 듣고 정성껏 도와 드렸습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주일예배에 봉헌위원과 안내위원으로 참석을 하고 수요일예배 대표기도와 매월 4째 주일 코로나19 발열 체크 및 QR코드 입력 등의 예배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권사회의 작은 이웃사랑이 온전히 주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질 길 소망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조정애 권사 / 권사회장



2020년 주님의교회 청소년수련 여름 옴니버스 챌린지

“창문 넘어 함께 사는 ‘10대’그리스도인”

2020년 주님의교회 청소년수련 여름수련회가 8월23일(주일) ~ 9월6일(주일)까지 온라인과 일상의 삶 속의 챌린지 참여의 형태로 진행된다. 코로나19 상황으로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각자 삶의 6가지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도전 과제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구글링크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한 청소년에게 티셔츠와 기념품이 든 선물박스를 보내며, 각 가정에서 챌린지 주제를 외친 동영상을 찍어 보낸다. 8/23(주일), 8/30(주일) 스트리밍 예배 후, 나, 가족, 친구, 신앙, 미디어, 환경 등 6가지 영역의 도전 과제를 부여하며, 참여 후 소감을 영상이나 문구로 만들어 제출하고 9월 6일 예배시에 발표하는 단계로 진행된다.

함줄함울

알립니다

1. 2020 여름 수련회 일정

8/9 (주일), 8/16 (주일), 8/23 (주일) : 청년수련 여름 말씀 집회
8/22 (토), 23 (주일), 30 (주일) : 유소년수련 연합 여름수련회
8/23 (주일) ~ 9/6 (주일) : 청소년수련 여름 온라인수련회
8/28 (금) : 겨자씨인도자 수련회

2. 2020 항존직 후보자 증직자 추천 투표 실시

일시 : 8/9 (주일) 오전 8:30 ~ 오후 3:30 / 장소 : 식당(지하)

